

東南亞 視察團 紀行文 〈2〉

朴 榮 大
(蔚山 麗都建築 設計社代表)

2月13日(金)晴, 8時에 일어나서 1層 食堂에서 간단히 조반을 들고 우리 一行은 버스 便으로 싱가포르 주재 韓國大使館으로 간다.

말레이시아 入國 비자를 申請해야 한다. 많은 時間이 걸렸다. 오는 길에 珍奇한 악어 養殖場을 둘러 보았다. 여러마리가 우리 안에 죽은 듯 옆드려 있다.

쫓고 소리를 지르니 보기에 둔한 놈이 아주 재빠른 動作을 취하며 움직인다. 거기서 안 사실이지만 바다 악어와 민물 악어가 각기 다르다. 악어가죽 製品이 진열장에 가득하다.

여기서도 에누리가 심하다. 나는 언제나처럼 一行 중에서 같은 製品을 제일 비싸게 샀다고 놀려댄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熱帶樹와 대나무의 숲에 쌓인 조용한 洋屋의 中國 食堂에서 고기와 뽕음밥으로 잘 먹었다. 우리는 어제 밤에 갔던 서울의 南山같은 곳에 다시 간다. 싱가포르의 南山이라 할까? 周圍에는 여러 가지 꽃들이 피어있다. 어제 밤에 보았던 市街의 高層建物群들이 맑고 빛나는 太陽 아래 한결 鮮明하게 보인다. 우리는 캐-볼카를 타고 센트사(平和와 고요의 섬)섬으로 건너 간다. 싱가포르의 海岸線이 한눈에 싹 드러온다. 참으로 상쾌한 氣分이다.

밀을 내려다 보니 아찔하다. 바다의 물결과 椰子의 숲에 쌓인 적은 섬들과, 섬을 둘러싼 흰모래밭이 매우 곱다. 그때 一行中 한사람이 손가락을 가르키며 고향을 친다. 그쪽을 보니 흰 모래밭에 한마리의 악어가 어슬렁 어슬렁 기어 오르고 있지 않은가! 참 神奇한 모습이다. 얼마후 우리는 또 時計를 들여다 보며 日程에 쫓겨 되돌아나왔다. 또 버스에 搭乘하여 이곳에 有名한 타이거·밤가든으로 向했다. 가는 길에 東쪽 車窓으로 소르단 回敎寺院이 지나간다.

黃金色으로 둥근 그리고 뾰족한 돔, 이것은 典型的의 回敎寺院의 建築樣式이다.

東洋에는 大多數가 佛敎國이지만, 이곳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만은 回敎徒가 많은 나라라고 한다. 타이거·밤 公園은 약간 경사지이며 正門은 中國古代建築樣式이다. 올라가는 길목에는 各種의 人物, 動物, 建物 등으로 實物크기 以上으로 彫刻 彩色되어 있었다.

푸른 숲과, 길과, 다리와, 들계단과, 亭子와 고운 잔디와, 그리고 만발한 꽃속에 여러 조각들이 가지 가지 형태로 놓여 있었다. 그 규모는 크고 여기에 中國人 胡氏가 父母의 功德을 추모하고 기리느라고 많은 得財한 財産을 아낌없이 投入하여 珍貴한 芸術 및 工芸品을 數年 或은 수 십년이 걸려 完成하였다.

그 후 많은 사람에게 無料로 開放하여 觀覽할 수 있게 慈善을 베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꼭 같은 규모의 것이 香港에도 있다고 한다.

물론 胡氏의 私財에 依해 築造된 것이다. 胡氏에게는 文豹, 虎豹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 다 지금은 故人이 되고 現在는 胡氏의 막내 따님이 재산관리를 맡아 한다고 한다.

胡氏의 大陸的인 氣質이라 할까? 그 生覺의 遠大함에 故人의 冥福을 빌면서 人品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故國 親友에게 第三信을 보내는 글월을 쓴다. 來日 아침이면 아름다운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 조용히 마음을 整理하고 이곳서 받은 印象을 노트에 담아 둔다. 밤은 덧없이 깊어만 간다.

〈쿠알라·룸프〉

2月14日(土)晴, 6時에 일어나서 짐을 챙겼다. 9時 SQ112機로 싱가포르 空港을 離陸했다. 우리들은 처음으로 보잉 737 小型 Z機를 타게 된 셈이다. 不過 40分만에 말레이시아의 首都 쿠알라 룸푸르의 上空에 이르렀다. 上空에서 볼 이곳은 고무나무의 숲으로 덮여 있었다.

이곳 말레이자 사람들은 모두가 우리나라 사람보다 體軀가 小型이며 피부가 까다. 그리고 깊은 눈동자를 갖고 있었다. 또 껍이나 溫順하고 親切하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中에서는 가장 淳朴한 國民으로 느껴지며 親近感을 더해준다.

英語로 案内하는 30代の 이곳 青年은 껍도 沈着하고 每事에 操心性이 있어 보인다.

Subang 空港에서 쿠알라 룸푸르까지는 22.5km 空港街道에는 異國情趣를 흠뻑 풍기는 고무나무들이 뒤로 흐른다.

큰 工場도 보인다. 案内人께 물어 보았더니 獨逸 밴즈 会社와 合作会社로 各種 自動車 組立, 生産, 販賣 輸出을 하고 있다 한다. 近郊 高速道路 建設에는 놀랍게도 우리 나라 高麗開發 建設会社와 大林産業이 進出해 있다는 消息을 듣고 감개가 컸다. 한국 技術者에 對한 評判이 現地人들에게 좋다는 것이다. 英國人이 말고 있는 建設工事に 比해 부지런하기 때문에 進度가 빠르며 工事의 質도 좋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技術者들이 海外에서 정말 잘 뛰고 있구나 生覺하니 맘 든든하게 여겨진다. 우리는 市内到処에서 建設되는 高層 建物 現場들을 볼 수 있다. 建設發展하는 首都 쿠알라 룸푸르의 活潑한 모습이다.

얼마後 市内中心街에 자리한 Regent Hotel에 닿았다. 純白의 15層 建物이다. 内部는 유럽 古典式으로 內裝處理되어 있고 모든 壁面과 裝飾들은 티크 原木으로 加工 彫刻되어 安全感을 느끼게 하며 旅行者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 앉게 해 준다. 바닥의 寄木張이며 테이블 그리고 遮陽門까지도 모두 티크木으로 되어 있다.

6層 階에서 땀을 씻고 市街를 굽어보니 南國 特有의 온갖 奇花妖草가 數千個나 화분에 담겨 있다. 나는 820호室을 配當 받았다. 말레이시아는 본시 말레이인들만의 나라였으나 1963년 9월에 구말라야 聯邦 싱가포르(1965年 8月 脫離) 및 英國領 보르네오(사라왈라·사바)가 합쳐서 發足된 新生國 地形은 코끼리의 코모양으로 길게 빠져 말레이시아半島 北部는 泰國과 國境을 이루고 西쪽은 말레카 海峽을 사이에 두고 스마트라 섬에 面하고 있다. 全國土의 80% 이상이 산과 낮은 습지의 혼합이고 太陽과 풍부한 雨量으로 숲이 茂盛하다. 여기도 經濟權은 中國人이 쥐고 있다는 것이다. 政治的으로는 英國人이 實權을 掌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複雜한 樣相을 表面에 나타내고 있다. 原住民 아가씨들의 고운 衣裳이 눈에 띄는가 하면 中國系 아가씨도 보이고 우아한 모습의 사리를 걸친 印度 아가씨들도 보인다.

多民族 混血國家라고 느껴진다. 높이 솟은 回教塔, 中國風 寺院 말레이야 特有의 建物용마루가 휘어져 兩 끝이 하늘을 찌르듯이 솟구치고 있다. 4個州에서 交

代로 首相이 5年마다 뽑힌다고 한다. 總面積은 33萬 km² 이고 人口 1,100萬名 言語는 英語와 말레이 固有語를 使用하며 日本語도 더러 通用 된다고 들었다. 싱가포르 화폐도 通用된다고 한다. 國民所得은 우리보다 높고 고무와 주식産地로서 世界總生産高의 1/3을 占하고 있다. 全人口 中, 말레이시아人이 45%, 中國人이 35% 其他 印度 파키스탄 사람이 約 10% 内外라고 한다.

쿠알라 룸푸르는 세란골州的 州都이며 이 나라 首都로 人口 100萬 말레이시아의 거의 中央에 位置하고 있다. 우리는 또 市内 觀光에 나섰다. 서울을 떠나 꼭 일주일일이 지났다. 團員中에는 釜山서 오신 鄭鎮哲會員이 65才 고령이시고 紅一點인 亦是 釜山出身 朴鏡子女史의 健康이 염려되었다.

급변하는 日氣, 나라마다 다른 食事, 물, 그리고 連日 접치는 빡빡한 스케줄에 맞추어 뛰는 強行軍, 鄭會員께서는 기진맥진 完연히 피로한 기색이다. 우리는 모두 内心 不安하였다. 되도록 宿所에서 休息을 취하도록 勸誘하였다. 이곳 고무나무 農場엘 들렀다. 고무 加工 工場도 둘러 보았다. 끝없는 山野에 整然히 줄지



쿠알라·룸푸르 郊外에 있는 고무나무 栽培林에서

어 선 고무나무 마치 軍隊의 열병식처럼 가지런하다. 우리나라에서 보는 그런 고무 나무가 아니고 보통 키가 6~7m 程度이며 잎은 윤택하지만 크지는 않다. 生 고무의 加工過程은 아주 간단하다. 樹液採取만 끝나면 간단히 處理된다. 家內工業 程度의 規模라 하겠다.

여기서는 견딜 수 없는 지독한 냄새가 나지만 現地人은 잘 참고 견뎌낸다. 거기서 나와 一行은 Batu 鍾乳 窟로 갔다. 우리나라 濟州島 萬丈窟 보다 적은 규모라 生覺하면되겠다. 平地에 있는 것이 아니고 山腹 중턱에 있는 데 높이 100m 남짓하지만 6人乘카-가 왕복한다. 습기가 비교적 적고 天井에 수천이 넘을듯 박 쥐매들이 서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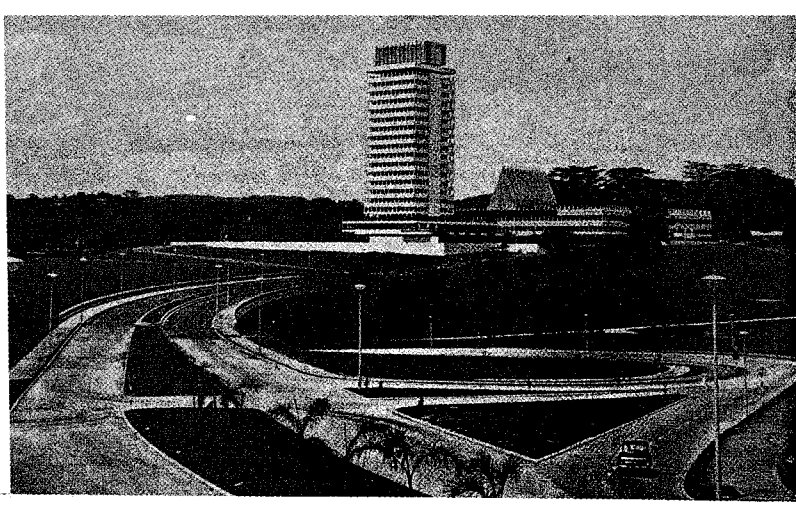
下山 길에 土産品 商店에 들러 보았다. 이곳 原住民 아가씨들의 손으로 짜여지고 捺染된 織物로서 男女衣類는 특유한 무늬와 디자인으로 된 옷이다. 우리는 값도 싸고 記念으로 사 입고 거리로 나왔다. 서로를 분별할 수가 없었다.

순식간에 말레이인으로 변장되어 누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어찌나 그때 배를 움켜 쥐고 어린애처럼 모두 웃고 말았다.

다음 코오스는 國會議事堂이었다. 막상 도착해 보니 軍人들이 삼엄하게 경계망을 펴고 있었다. 理由를 알아 본즉, 며칠前 極左派에 依해 爆彈이 投擲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이 나라는 回教의 나라답게 아라비안나이트를 連想케 하는 돔의 回教寺院들이 여러곳서 볼수있다. 그 規模도 매우 큰(便)이다. 우리는 한 回教寺院에 들렀다. 入해서 신발을 벗고 大理石 層階를 올라 大廳으로 갔다. 大理石의 기둥이며 바닥들이 티없이 아름다웠다. 그가운데는 못이 있고 噴水가 여러곳서 치솟고 있어 淸涼하게 느껴진다. 거기서 우리는 비를 만났다. 熱帶地方 特有的의 午後에 내리는 스콜이었다. 約1時間 可量 繼續되었다. 우리는 車로서 國立競技場 앞을 지나왔다. 우리나라의 蹴球選手들이 이 競技場에서 뛰었다. 生覺하니 感懷가 있다. 우리의 말레이지아 案内人은 Korea 에 對해서 相當히 아는것이 있었다. 내가 갖고 이고간 거북선 담배를 한갑 膳物로 주었더니 거북船 그림을 보고 倭兵을 무찌른 艦船이 아니냐고 묻는다. 나는 큰 얼굴로 그렇다고 했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것을 보고 또 느꼈다. 東南亞 어디로 가나 中國人이 없는 곳이 없으며 巨大한 商權의 牙城을 차지하고 있다는 事實과 中國語는 어디로 가나 通用된다. 그리고 어느 都市로 가나 거리마다 回製車輛들이 洪水의 물결을 이루며 疾走하고 있다는 것이다. 都心地의 照明看板에는 日製時計와 카메라가 宣傳되어있다. 空港이나 hotel 이나 觀光地 어디로 가나 日人들의 물결이다. 어느나라든 日語를 아는 사람이 많았다. 나를 日人인 줄 알고 日本語로 말을 걸어왔다. 나는 "I am Korean"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者は 눈만 껌뻌 껌뻌하고 있었다. 어떤 憤怒 같은것이 치솟았다. 우리 나라도 하루 速히 G. N. P가 上昇되고 東南亞로 많은 商品과 技術人力들이 進出하여 Korea를 認識케 하는 날이 切迫한 所望으로 여겨진다. "國民이 外國에 와서야 나라의 所重함을 더욱 切實히 깨닫고 愛國하는 者가 된다" 外國을 다녀온 나의 親友의 말이 다시 되뇌여진다.

저녁 食事を 하기 爲하여 우리는 宿所에서 얼마 안 멀어진 곳에 徒步로 갔다. 看板이 아리랑(Arilang) 食堂이다. 이 먼 異域에서 韓國食堂을 보게 되다니, 2層



말레이아의 首都 쿠알라·룸퍼 에 있는 國會議事堂.

의 소담한 室內에는 손님들이 차있다. 盛況을 이루고 있는듯 하다. 스피카 에서는 銀방울 姉妹의 구성진 노래 소리가 情담게 들린다. 50이 채 못되어 보이는 짙은 化粧의 女人이 나와서 우리를 반겨준다. 이 食堂의 經營主, 勿論 韓國人이다. 우리들은 對話를 갖고 싶었다. 그러나 그女人은 바쁘게 돈다. 우리들의 태·불을 떠나면서 未安하다고 눈인사를 한다. 된장국과 쌀밥과 김치와 불고기가 나온다.

鄭鎮哲氏와 成團長이 麥酒를 산다. 나는 暫次 蓄積되어 온 몸과맘의 旅毒이 녹아 내리는듯 하다.

來日은 陰曆 正月 大보름 中國風習에 따라 市内 차이나 타운에서는 前夜祭가 한창이다. 爆竹을 터트리고 불꽃노리가 밤 가는줄 모르게 밤하늘을 繡놓는다.

나의 房에 앉아 내故鄉을 生覺하며 아름다운 불꽃에 넋을 잃는다. 來日이면 이나라도 떠난다. 淳朴하고 맘씨좋은 말레이지 사람들이여 잘있거라.

2月 15日 (日) 晴 6時 일어났다.

아침 일찍 조반을 끝내고 屋上을 전망대로 삼아 쿠알라 룸푸르 市街를 찬찬히 구경하며 休息을 취했다.

도처 人間이 있고, 집이 있고, 나무가 있고, 江이 있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리

出發에 앞서 市内 建築工事場을 둘러보았다. 모래도 우리것과 달라 아주 빛이 희고 有機質이 전혀 없어 粒度가 조금 가는 것이 흙이라 하겠다. 자갈은 白色의 花강암 碎石인데 亦是 粒度가 잘게 보인다. 철근들은 $\phi 30\text{mm}$ 가 눈에 많이 띈다.

3時 55分 CX 170으로 쿠알라 룸푸르를 離陸했다.

香港 現地時間으로 7時 50분에 安着했다. 時差를 고치고, 홀리데이인 호텔에 旅裝을 풀었다. 디럭스 호텔이다. 나의 방은 921호실, 旅行中에 우리는 항공기 便 의우려 各國 화폐환전率 의우려 宿所 号室의우려, 빨래하랴, 구두, 닦으랴, 觀光하랴, 사진찍으랴, 便紙 쓰랴, Memo하랴, 눈이 핑핑 돌 程度였다.

釜山會員 朴女史는 간밤에 子正무렵 어느누가 自己 방문을 심하게 두드려 많이 놀라서 통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한다. 아마 어느 술친구가 自己방 호실을 착각한 모양이다. 旅行中에는 흔히 있는 일이라 하겠다.

나도 잘 나가다가 東京 銀座 호텔에서 그만 남의 房을 붙씩 열고 들어가 버렸다. 日人인듯한 相對가 더 당황하는 모습이란 지금도 뇌리에 잊혀지지 않으며 苦笑을 禁할 수 없다.

Holiday Inn Hotel은 世界 各國에 체인을 갖은 香港 屈指의 Hotel의 하나이다. 지난해에 新築開館한 집으로 산뜻한 새내음이 있다.

地上 20層 地下 3層, 客室 600이 넘을 듯, 1層 후론트는 外國人으로 언제나 붐비고 있다. 이 HOTEL은 飛行場이 있는 九龍 사이드에 있다.

밤거리를 1時間 可量 散策하고 도라왔다. 우리 나라는 하루의 始作이 아침이지만 이곳은 “日沒과 더불어 하루가 始作한다”라는 말이 거짓이 아닌 것 같다. 輝煌찬란한 照明 아래 모-든 人間의 各型態의 動作은 始作 되는 것이다.

〈香港〉

2月16日(月)晴. 여기 氣溫은 泰國·싱가폴·인도 내시아 보다 한결 지나기가 낫다. 年平均 氣溫 24℃라고 한다. 香港은 人口 400萬의 英國 直轄 植民地이다. 言語는 英語와 中國語 그중에도 廣東 方語를 많이 使用한다.

國土 總面積은 不過 1,034km²에 지나지 않는다. 通貨는 香港 달러를 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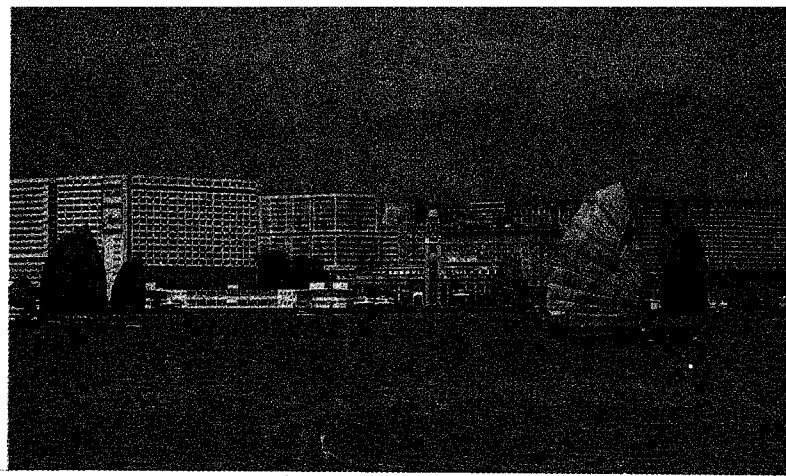
香港은 中國 本土 廣東省의 南東部에 位置하고 있다.

香港섬 北쪽의 1.6km 바다를 사이에 두고 九龍市가 있고 이곳에 國際空港이 있다. 香港 아일랜드와 九龍市는 英國領이지만 나머지는 中國으로 부터 租借한 땅이다. 香港섬은 花崗岩質으로 된 丘陵의 섬으로서 平地는 거의 없다. 北쪽의 가파른 傾斜面에 階段式으로 造成한 것이 빅토리아市 香港의 首都이다.

香港은 地理的으로 熱帶圈에 있지만 比較的 氣候變化가 많다 한다.

香港이 英國에 領有하게 된것은 저 有名한 亞片 戰爭以後, 當時 香港은 이름 없는 漁村에 不過했지만 百年 남짓한 期間으로 오늘과 같은 世界的 自由 貿易港인 大都市로 發展한 것이다. 天然의인 좋은 港口와 地理的으로 交通의 要路, 그리고 數 많은 倉庫로 中繼貿易을 했다. 世界의 모든 商品들이 다 있다할 수 있겠다. 太平洋 戰爭以後 中繼 貿易에 그치지 않고 加工 貿易에 손을 뻗어 香港製品이 全輸出高의 77%를 차지한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400萬 人口中 約10萬 이 水上生活을 하고 있다니 놀라운 일이다. 全人口의 99%가 中國人이고 나머지는 英國人과 印度人이라 한다.

九龍사이드와 香港사이드와의 最단 距離는 約 1,600 m 이고 거기는 퍼리가 運般하고 있으며 海底 터널도 連結되어 있다.



香港에 높이 솟은 最新建物들과 옛 交通手段인 장크의 帆船이 共存하고 있다

우리는 待期한 버스에 塔乘하고 南쪽 海岸線을 따라 中國 廣東에 있는 中共 境界地로 갔다. 이곳의 地名은 락마·짜오(落馬州)라 한다. 거기에는 많은 外國 觀光客들이 붐비고 있었다. 우리도 丘陵위로 올라 멀리 江이 구비쳐 흐르고 있는 것이 보인다. 平野의 한가운 대를 흐르는 이 江이 境界線인 것이다.

빨갓고 흰 三角旗가 約 100m의 간격을 두고 꼬쳐 있다. 中共側 境界에서는 至今 수선 工事를 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休戰線이 있는 우리의 処地로서는 單純한 求景으로서가 아니고 深刻한 鬱悶을 느끼게 한다. 우리는 下山하여 車를 탄다.

우리는 지금은 九龍半島의 反對쪽을 달린다. 우리의 案内人은 韓國을 一次 다녀온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韓國사람들은 넓은 땅을 갖이고 살 수 있으니 참으로 부럽다”고 한다. 나는 처음엔 무슨 뜻인지 잘 몰랐다. 說明에 依하면 이곳 香港의 地價는 世界的이며 人口密度 또한 世界第一 이라고 한다.

그러기에 中産層 以下는 모두가 비좁은 아파트나 船戶에서 生活해야 한다.

그것도 거리가 20坪 以下の 것이며 畢生의 努力의 代價로 얻어진다고 한다.

案内人의 말이 수궁이 간다. 山비탈의 單獨으로된 單層 기와집들이 車窓에 보인다. 저것이 極少數의 富裕層에서 居住하는 住居들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먼 都市 변두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一般的인 기와 住宅 같이 보인다.

이곳의 아파트는 윗층 일수록 高價라고 한다.

우리들이 가는 길가에는 都市擴張 工事 및 宅地 造成 工事場과 道路 工事를 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우리는 九龍市街地를 다시 둘러왔다. 어느 中國食堂에서 點심을 먹었다. 冷水를 한컵 시켰더니 冷水 한병 가져와서 돈을 내라고 한다. 모두 그 人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알고 보니 蒸溜水라고 한다.

市內에서 2層 버스를 보았다. 英國과 香港에서만 볼 수 있다는 빨간색 外部에는 商品宣伝이 그려져 있고

보기에 기웃뚱거리며 不安定하게 느껴진다.

海底터널을 지나 싱가포르에서 본 저 有名한 中國人 胡氏가 築造했다는 똑같은 Tiger Balm garden에 이르렀다. 地勢는 가파른 絶壁의 산을 背景으로 하고 있으며 멀리 바다를 굽어보면 갖가지 原色의 빛을 發하고 있다.

여기는 主人 胡氏의 銅像과 遺骨을 모신 納骨塔과 워패가 安置되어 있었다. 胡主人의 큰뜻에 숙연히 고개가 숙여진다.

다시 一行은 車를 달려 香港섬의 中央山頂으로 올라갔다. 나선형으로 틀어올라 가면서 周圍를 觀望 한다. 울창한 숲속의 山腹길로 車는 疾走 한다.

이섬에서 쓰는 火力發電所 健全체가 쓰고 먹는 貯水池 漁船들이 드나드는 적은 浦口 香港서 이름난 富豪의 住宅들도 볼수 있다. 山頂 가까운 곳에서 車는 선다. 最高 山頂에 가자면 다시 캐블카를 타야 한다. 우리들은 時間에 쫓기어 캐블카에는 타지 못한다.

우리는 그곳서 九龍 사이드를 바라본다. 그리고 이 곧 香港 사이드의 海岸線을 따라 서있는 高層建物들을 바라본다. 그곳에 62層 東洋最高의 建物이 銀白色으로 그偉容을 자랑하고 있다. 모두 아름다운 世界的인 大都의 모습이다. 어느듯 山 중턱 부터 구름이 일기 시작한다. 우리가 있는 山頂 가까운 곳도 瞬息間에 구름속에 잠싸인다.

山아래로 내려 간다. 海邊에는 海水浴을 한가롭게 즐기는 外國人들과 귀여운 아이들이 물장구를 치고 있다.

觀光 予定에 따라 바다 위에 數 많은 장크들을 보며 香港의 名物 에버딘 (Aberdeen)

海物食事を 하러 갔다. 車를 내려 渡船을 갈아타고 건너 便, 浮船 위에 지어진 中國式 建築物은 豪華찬란한 色彩로 단장되어 있었다. 3層 建物이다. 建物안 前面 中央에는 古代 中國天子의 龍座와 기둥이 서 있고 照明이 黃金色의 龍座를 비추니 莊嚴하게 느껴진다. 우리는 主人의 양해를 얻어 交代로 龍座에 앉아 보고 카메라에 담았다. 海物 食事を 싹껏 먹었다. 모두 珍奇하다. 黃昏 빛이 출렁이는 바다와 하늘을 붉게 물들인다. 平和롭고 꿈같은 風景이다. 돌아오는 길에 이곳에서 商店을 經營하는 郭氏께 電話를 걸었다. 저녁에 반값에 Hotel로 찾아주어 만났다. 그분의 案内로 어느 百貨店에 들러 毛筆을 몇 자루 샀다. 나는 U S달러 밖에 없었는데 郭氏가 代身 香港달러를 支拂하여 購入하게 되었다. 돈 때문에 절절메다가 그만 붓을 두고 돈만 내고 와버렸다. 밤이 늦어 百貨店도 閉店한 後라서 어쩔 道理가 없었다.

宿所에서 故郷 親知께 第4 信을 띄웠다.

2月 17日(火) 晴 食事が 끝나고 午前엔 自由時間이라서 나는 郭氏집에 들러 어제 毛筆을 두고 온 것을 이야기 하고 同行을 請했더니 自己집 店員을 시켜 찾아 왔다. 나는 몹시 기쁘고 반가웠다. 침대에 누워 旅毒을 풀겸 좀 몸을 쉬었다. 한결 몸이 가볍고 개운한 느낌이다.

午後 3時 30分 空港으로 떠났다. 5時 30分 CX 500 機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나라인 日本으로 떠났다. 羽田空港에 到着한 것은 現地時間으로 밤 10時頃이었다.

入国手續이 몹시 까다로운 税関員을 만나 아쉬운 時間을 허비하였다.

空港 待合室에서 서울交通 陳箕植 社長과 林東文, 東京支店長의 迎接을 받으며 空港 버스 便으로 銀座8丁目에 있는 銀座 第一호텔에 닿았다. 5412호실에 慎重廣氏와 나란히 房에 들었다 (慎은 團員中 第一젊은분) 나와는 工業學校 先後輩 關係였다. 마침 柳濟斗 권투 選手의 世界第二次 방어전이 있는 날이라서 結果가 몹시 궁금하여 호텔 종업원에게 물어 보았더니 15回 KO 敗 하었다기에 우리 一行은 그때 서운 함을 말로 表現하기 어려웠다. 나는 목욕을 하고 폭 쉬었다.

〈日 本〉

2月 18日(水) 雨

아침부터 찌푸른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리들은 日本建築士連合會와 會晤을 하게 되었다. 그 쪽 事務局長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市内 東京會館 5層 會議室이 予約되어 있었다. 10時에 그곳으로 갔다. 日本側에서 掘井(호리이)會長과 우찌야마(內山)副會長과 나카지마(中島)專務理事와 그 外 任員등이 多數 參席하여 우리들을 맞아 주었다. 호리이會長의 환영사는 遠路에 訪日을 眞心으로 반긴다는 要旨의 말씀과 앞으로 親善交流의 度를 더해 갈것을 당부한다. 成團長의 答辭와 會員 人事召介가 있었고 3月 28日頃 서울에서 있을 本協 臨時總會에 李圭福 會長이 堀井連合會長을 招請한다는 초청장이 傳達되었다. 선물교환이 있었고 이어 質疑応答形式의 간담회가 始作되었다. 나는 現 日本建築士會에서 行政의 面에서 가장 어려운 問題點들을 詳述해줄 것을 要請했다. 많은 問題點들이 提起되었고 또 論議 되었다. 우리나라의 實情과 共通되는 여러 問題들도 나왔다. 現 日本에서는 年 1萬名의 建築士들이 輩出 되고있는 點 士法과 建築法의 問題點等이 相互 이야기의 焦點으로 되었다.

現日本서는 独占禁止法에 依해 設計 報酬料가 自由化될 政府側의 움직임이 보이자 連合會에서는 關係要路에 陣情 建議 說得 運動을 펼치고 있으며 最後에 가서는 政府相對로 法廷 斗争까지할 決意를 갖고 있다한다.

公害問題와 防災問題 그리고 말많은 日照權 問題等 度範圍 하게 論議 된다.

또 昨年에 能本県에 있는 大洋 아파트에서의 大火 發生時에는 入住者 100余名이 死亡하였다 한다.

會議室 옆房에 미리 準備된 술과 食事의 자리로 옮겨 이야기들은 繼續된다.

下午 3時頃 借別의 情을 나누며 明日 다시 우리들을 東京副都心地라 일컬수 있는 신즈구(新宿) 高層 빌딩街에 우리를 案内해 주기로 約束하고 헤어졌다.

宿所로 돌아온後 우리들은 후리·타임이 되었다.

나는 韓日 國交 正常化 된後 우리나라로 처음 進出한 日本大成建設이 韓國肥料工業株式會社를 建設할때 그들 會社에서 約2年에 걸쳐 設計및 監理 勤務를 한 바 있었다. 그當時에 같이 일한 大成建設 職員들에게 電話를 하였다.

그들은 미리 내가 올것을 알고 있었으며 自己를 집에 宿所까지 마련하여두고 있었다. 목소리를 듣더니 무척 반가워 한다. 5時 勤務時間이 끝나자 나의Hotel로 찾아왔다. 마쓰자와·시게루(松沢滋)氏와 아사이유이찌(麻井雄一)氏다. 그前 訪日때 大阪및 東京等에서 만난지 約5年만인 가보다.

우리들은 그동안 가끔 便紙 往來가 있었지만 이렇게 만나고 보니 기쁘다.

끝할줄 모르는 話題 여러 同僚들의 安否와 지난날의 追憶談 모두가 즐거웠다. 요즘은 中東地域의 設計에 바쁘다고 한다.

내가 韓國서 붓글씨를 써서 族子로 만드려간 3巾의 두루 말이를 주고 그 内容의 글귀를 解釈하여 주니 바른 生活속에서도 이렇게 書道에 精念하니 感嘆할 따름이라고 칭찬이 자자하다. 麻井雄一 大仁을 爲하여 丙辰迎春에 竹山 朴俊輝가 이글을 書하니 淸賞하여 달라는 落款이 前後列에 작은 글씨로 쓰여지고 頭印과 遊印 号와姓名의 石印이 찍혀져 있다. 本文 體는 張淸碑와 曹全碑文의 合體인 隸書體로 되어있다.

셋은 어둠이 깔리고 내온이 点滅하는 東京의 心臟部인 銀座의 거리로 나섰다.

거리의 싸인보드에는 록키드 事件의 뉴스로 범석을 이루는것 같다.

요즘 日本의 晝間 電力 消耗가 34%나 增加했다 한다. 그것은 모두가 록키드 事件의 TV를 視聽하기 때문이라고 풀이되고 있다 한다.

비어홀에 갔다. 5年前에 우리는 그곳서 痛飲한 적이 있었다. 다만 歲月이 흘렀다는 것과 그때는 무더운 三伏더위의 夏節이었다는 것 뿐이다. 많은 이야기에 많은 술들을 마신다. 10時가 넘어서야 우리들은 地下室 洋酒집으로 옮겨 또 마신다. 이번 旅行길에 抑制해 왔던 술을 한꺼번에 매꾸려는 듯이 자꾸 마신다. “有

朋이 自遠方來하니 不亦樂乎”라는 孔子의 말이 實感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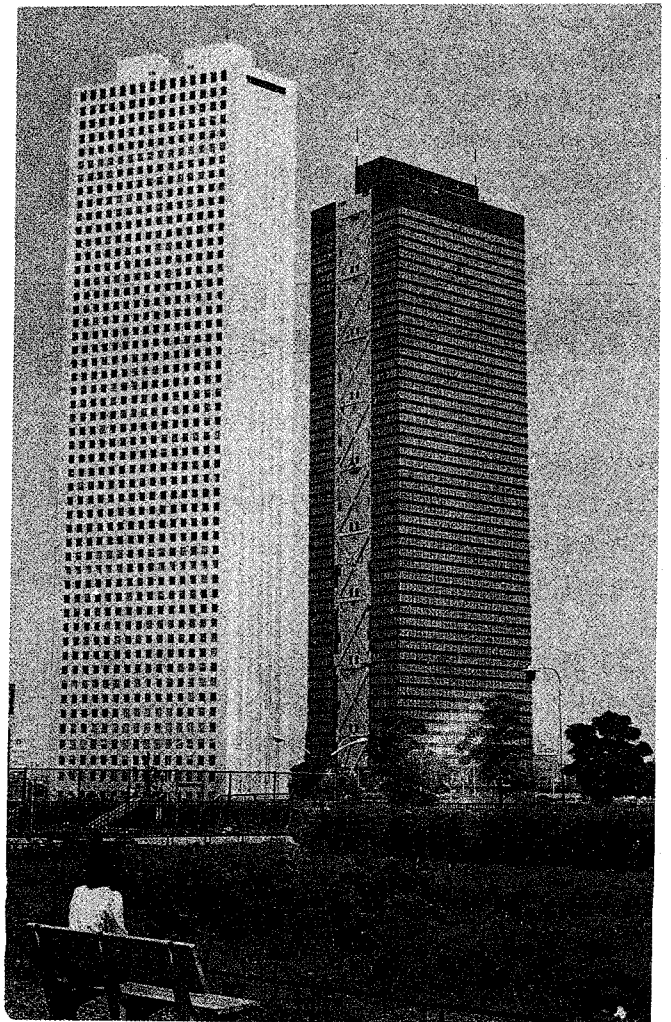
12時가 되어서야 나는 宿所로 돌아왔다. 용케 내房을 찾아 들어 寢台에 쓰러진다.

2月 19日(木)曇 우리는 10時 서울 交通에서 내어주는 버스 便으로 宮城앞으로 왔다. 부슬비에 젖고있는 二重橋를 보았다. 자못 感懷가 複雜하다. 日政時代에 學校에서 強壓으로 宮城瑤拜와 “皇國臣民의 盟誓”의 暗誦을 10年間이나 하였으니 말이다.

그때 天皇은 現人神의 至尊이라고 했다. 그러나 戰後인 지금은 天皇을 가리켜 덴짱(天君)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다는 案内의 說明이다.

우리는 신즈구(新宿)地區로 갔다. 52層의 쓰미도모(住友)빌딩·미쓰이(三井)빌딩·개이오(慶應) 빌딩의 摩天樓가 나란히 偉容을 誇示한다. 쓰미도모(住友) 빌딩의 外壁 處理는 銀白의 스텐레스 板으로 되어있다.

52層까지의 高速 에레베트를 탔다. 20秒쯤 걸렸을



日本 東京의 副都心地, 신즈구(新宿)에 높이 솟은 쓰미도모(住友) 및 미쓰이(三井) 빌딩(52층)



까? 展望室에서 내다 보는 東京의 끝없는 모습이 너무 廣大하다. 分明히 여기에 問題點이 있을 것이다.

이 建物에는 모든 安全 및 管理가 컴퓨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다.

우리들은 그곳을 떠나 아카사카(赤坂)를 거쳐 간다(神田)·우에노(上野)를 經由해서 아사쿠사(淺草)로 간다. 같은 市内인데도 한時間이 더 걸린다. 車輛疎通이 잘 안되기 때문인 것이다.

神田·淺草等地는 東京以前에도(江戶)時代부터 庶民들의 住居市場 등이 분비는 곳으로 庶民들의 哀歎이 點綴된 곳이기도 하다.

우리들은 그곳의 라이몽(雷門)을 보고 劇場을 들려 나왔다.

우리는 明日 아침 解團을 한다.

宿소에서 蔚山 나의 집으로 電話를 냈다. hotel의 電話係員이 電話料金は 어느쪽에서 支拂 하겠느냐고 묻는다. 나는 蔚山에서 내겠다고 말하고 있으니 2분도 채 안되어 집이 나왔다. 그간 집과 事務所과 모두의 安否를 물었다.

그리고 나는 22日 羽田發 4時50分の CPA便으로 떠난다고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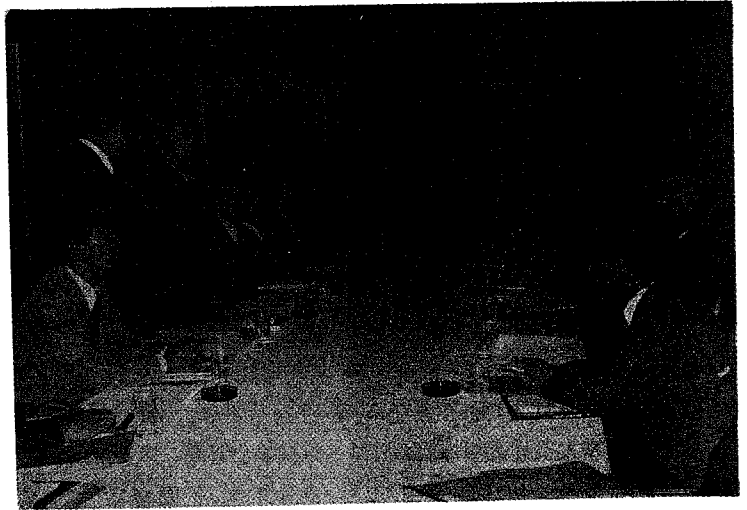
東京의 밤은 아직도 춥다.

2月20日(金) 曇 釜山 會員 3名과 나의 룸·메이드는 明日 서울로 歸國한다고 準備를 서둔다.

그 나머지의 會員들은 大阪等地로 해서 좀더 머물다가 가기로 했고 후론트에 내려와 計算書를 보니 컴퓨터에 依해 Room 마다 電算化 되어 나와 있다.

支拂關係를 마치고 나는 明日 1泊 더할 房을 予約해 두고 아사이(麻井)氏 에게로 떠난다. 一行中에는 하꼬네(箱根) 地区로 떠나는 사람, 大阪 및 京都로 가는 사람 모두가 제각기의 用務·目的에 依해 떠난다.

우리들은 다시 韓國서 만날것을 期約하면서 惜別의 人事를 나눈다.



나는 그날과 그翌日 日本 大成建設本社 및 海外部·設計部等を 둘러보고 또 많은 現場 등 나의 業務에 분주히 쫓긴다. 그리고 現在 大成建設의 中東進出 業務와 設計의 프리핀을 듣는다.

나는 밤에 日本中流 家庭인 아사이(麻井)氏 自宅으로 가서 禮遇를 받으며 留宿한다.

나의 끝없는 冥想은 밤이 깊어감을 모른다.

22日 下午 5時 大成建設의 知人들과 그의 家族들의 飲送에 答하며 C. P. A機에 올랐다.

앞으로 해야할 많은 일들을 構想하며 반가이 맞아줄 내나라 내家庭으로 가기 為하여 東海의 上空을 날르고 있다.

1976年 3月 10日 脫

蔚山에서